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석사 방장)
"제세생생 줄지 않는
내 안의 보물 찾자"
8면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깊은 물은 소리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찬 항아리고
지혜로운 이는 가득 찬 연못과 같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윤9월 7일) · 주간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16호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접종 교회서 한다고?

서울 7개구서 교회 활용 단체접종... '교회 투표표' 재현

서울시 일부 구청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교회 시설을 활용해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 편의가 아닌 행정 편의대로 장소를 배정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0월 중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서울 25개구의 독감 무료 접종처를 조사한 결과 7개 구에서 교회 시설을 활용해 출장 단체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투표표'의 악용이 의료 복지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접종처로 교회 시설을 활용한 곳은 성북구와 동대문구, 구로구로 총 5곳의 교회에서 출장 단체접종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강서구, 도봉구는 2곳서 서대문구와 관악구는 1곳의 교회에서 출장 단체접종이 이뤄졌다.

반면, 다른 18개구는 바우처를 활용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구청 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단체접종은 2차 감염과 응급상황을 우려해 정부에서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단체예방접종 지침에 따르면 '접종 기관에 상관없이 간이 접종실에서 이뤄지는 단체 예방접종은 안전 접종을 위해 억제한다'고 명시했다.

교회 등에서 이뤄지는 출장단체접종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출장단체접종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며 10월 15일 감사원에 개선 요청 민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상에는 출장단체접종이 불법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지

〈표〉인플루엔자 출장단체접종 이용 교회

지역	해당 교회
강서구	배광교회(등촌2동), 화성교회(화곡본동) 총2곳
구로구	베다니교회(구로3동), 평화교회(고척2동), 개봉교회(개봉2동), 서남교회(수궁동), 성락교회(신도림동) 총5곳
관악구	명문교회(신림4동) 총1곳
동대문구	청량리성결교회(청량리동), 룻교회(회기동), 나사렛교회(전농1동), 경신 교회(답십리동), 장안교회(장안2동) 총5곳
도봉구	도봉감리교회(도봉 1동), 영광교회(창1동) 총2곳
성북구	뽕엘교회(정릉 3,4동), 사랑제일교회(장위2동), 신생중앙교회(석관동), 영암교회(돈암동), 장위중앙교회(장위1동) 총5곳
서대문구	충신교회(북가좌2동) 총1곳

성북구·동대문구·구로구가 교회 5곳 이용, 가장 빈번

응급상황·2차 감염 이유로 정부도 단체접종 삼가 권고 서울醫會, 시정 요구 제기해 종자연도 지난해 개선 요청

지자체 "예산 부족해서" 해명 요청받고도 '모르쇠' 일관해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개선교가 아닌 다른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행정을 일부 지자체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민간 의료기관에 수탁을 할 경우 접종 수수료를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북구 보건행정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접종 공고를 하기 전에 먼저 동주민센터에게 주민편의를 위한 접종처를 문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심의해 결정한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고, 보건소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접종을 시행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

연)이 지난해 민원을 제기한 동대문구 보건소도 주민 편의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동대문구 보건행정 관계자는 회신 공문에서 "시설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단체 예방접종이 불가피한 선택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시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곳도 상당수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은 충신교회에서 접종이 진행됐으나 바로 옆에 주민센터가 들어서 있다. 성북구 정릉 4동의 경우 뽕엘교회와 공공기관 동주민센터는 도보로 3분 거리이다. 실제 종량구와 강북구, 은평구 등은 출장단체접종처가 대부분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병태 종자연 사무국장은 "종교 자유와 복지 행정이 무슨 상관인냐"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동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종교 인권과 관련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련의 교육이 '공염불'이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yunbul.com

〈관련기사 3면〉



무로마치시대 아시카가 쇼군이 소장했던 수월관음도.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공개됐다.

14세기 고려 불화, 日서 발견

700년 만에 발견... '용왕 공양 모습'에 학계 주목

7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1점이 일본에서 공개됐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일본 도쿄 미쓰이(三井) 기념미술관이 무로마치마부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1436~1490)의 가보로 소개하는 '히가시야마(東山) 보물의 미(美)' 특별전에서 세로 160.2cm, 가로 86.0cm인 수월관음도를 소개했다고 10월 20일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려불화는 700년 동안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최

상급에 속한다. 세로 160.2cm, 가로 86.0cm 크기로 보존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선재동자가 아닌 용왕이 공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아시카가 소장품이란 점에서 이미 이 불화가 최고급 명품으로 평가받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불화는 세계적으로 160여 점, 한국에는 10여 점 밖에 남아있지 않다. '수월관음도'는 전세계에 약 40점만이 남아 있어 높은 가치를 지닌다. 노덕현 기자

“도난 당한 성보문화재 불교·정부가 찾겠다”

조계종, 문화재청·경찰청과 도난예방 및 회수 협조 협약

지난 5일 말 조계종 문화부 A주 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시 진행되는 문화재 경매 모니터링을 위해 인사동의 한 경매업체의 도록을 살펴보면 중 도난품으로 보이는 성보문화재들이 대거 물품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문화부 스님들과 직원들은 경매 현장을 급히 찾았다. 경매가 진행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물론 신고를 접수한 광역역사대 형사들과 문화재청 직원들과 함께였다. 당시 도난품으로 확인된 4점이 압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0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추가 조사로 사상 최대인 48점의 불교문화재를 회수한 성과를 낸 데 이어, 회수과정에서의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조계종과 경찰, 문화재청이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와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조계종과 경찰청, 문화재청은 협약을 맺고 불교문화재 도난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수사과정 협조 등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총무원 지하공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강신명 경찰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3개 기관 대표와 정갑윤 국회 부의장 등 정부관계자, 48점 문화재의 원소장자인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얼어버린 불교문화재 회수와 예방에 뜻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해 회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자리를 통해 문화재 도난의 심각성에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각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전 예방과 회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전국 사찰의 소장문화재를 일제조사한 <한국의 사찰문화재> 발간 이후 도난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문화재 도난을 막기 위해 서로 기관간 협조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는 회수된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전이 열렸다. 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2면〉

‘수행연금’ 폐지... 대상 확대로 전환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금 대상과 방법, 실효성 등의 문제로 지급이 연기됐던 조계종의 수행연금이 폐지된다. 대신 승려복지 대상상을 전체 스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행연금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정책 공약 중 하나이지만 시작도 못하고 폐지 절차를 밟아 공약은 허언이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3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소득, 무소임의 65세 이상 승려의 수행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 복지 확대를 위해 승려복지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수행연금에 해당되는 제10조(수행연금)부터 제16조(비용부담)까지를 전부 삭제했다.

대신 조계종 총무원은 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승려복지 정책을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대폭 확대했으며, 스님들의 임원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입원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는 2015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된다.

또한 종단에 승려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승려복지회’를 두고, 이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승려복지실행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승려복지회를 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서 조계종 총무원 산하로 이관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1016호 INDEX

시방세계 5 승산 스님 열반 10주년 세계일화 대회 현장



‘세월호’ 앞에서 3·31 종교는 무엇인가 오강남 교수 불교평론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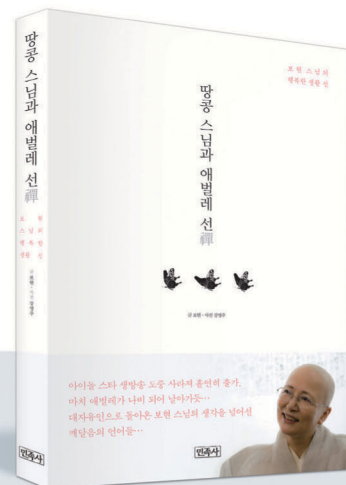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 선

80년대 최고의 스타 이경미, 생방송 도중 사라져 홀연히 출가, 힐링 멘토로 우리 곁에 돌아온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 선 이야기!

운동선수는 시합 긴장중후군, 달린트는 연기 긴장중후군, 가수는 공연 긴장중후군 등등, 긴장중후군은 다 불안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깨닫고 알아차리면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활 선을 하면 이러한 불안은 줄이고 없앨 수 있으며 보너스를 받았다는 고마운 느낌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글 보현 | 사진 강명주 변형신국판 라라 | 값 13,800원

민족사

서울시 중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동합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禪

마치 애벌레가 나비 되어 날아가듯... 대자유인으로 돌아온 보현 스님의 말과 생각을 넘어선 깨달음의 언어들이 눈부시다.

수행이 빛은 촛불살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주고, 스트레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현대인들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자기 안에 본래 간직한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내어 내면의 힘을 증폭시키는 비결, 행복한 생활 선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열어준다.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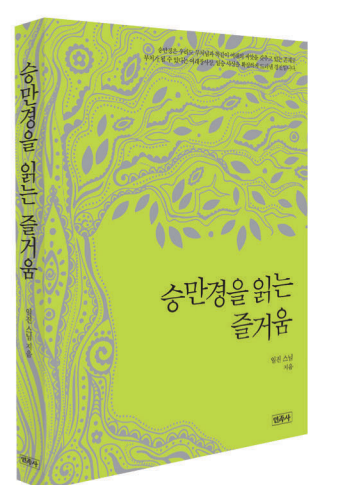
제가 여성 불자가 설한 유일한 경전 승만경을 비구니 최초로 풀이한 일진 스님의 승만경 해설서!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번역가로 전념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윤문사 최주 명성태 스님 추천사 중에서

■ 일진 스님 지음 | 신국판 변형 | 312쪽



Tel. 02)732-2403~4 민족사